

장성 대형 싱크홀 시민단체 고발 추진

호남고속철 인근 농지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복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장성시민연대와 고려시멘트 폐쇄 공동 황폐대책위(시민단체)에 따르면 싱크홀은 지난해 6월 장성 황룡면 와룡리 건동광산 인접 농지에서 발견됐다.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건동광산 2경도(2면)로부터 직선(수평)거리 104m, 수직고(지하경도에서 지상까지 높이) 60m, 고속철과는 100여m 떨어진 논에서 발생했다.

싱크홀의 크기는 폭 8~9m, 길이 4~5m, 깊이 2~3m 가량으로 목격됐다.

해당 농지 인근 지하 건동광산에서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굴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 발생 원인을 놓고 시민단체와 광산 운영사인 고려시멘트 간 '인제냐, 자연현상이냐'를 놓고 수차례 다툼이 일고 있다.

문제는 고려시멘트측이 싱크홀 복구과정에서 농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몰타르(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물질)를 농지에 대량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지법 위반' 여부와 '사유재산 침해' 행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유재산 침해' 부분은 재산권자인 토지 소유주로부터는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 권한이 없는 임차농에게만 동의를 받고 복구를 강행한 데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08년부터 모심기가 시작되는 6월이던 와룡리 일대 농지에서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되고 그때마다 고려시멘트 측이 농지에 몰타르를 주입해 긴급복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농지에 양질의 흙이 아닌 몰타르를 주입해 싱크홀을 복구한 행위는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성토·매립·복토할 때는 '양질의 흙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용 토사(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경우 1m이하까지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농지에 몰타르를 주입해 싱크홀을 복구한 행위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나 아니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논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양질의 흙이 아닌 몰타르를 주입했지만 다시 농사를 지

고려시멘트 싱크홀 복구 과정 몰타르 주입 '농지법 위반'·'사유재산 침해' 도마위

속할 수 있도록 복구했다면 농지법 위반 행위로 봐야 할지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실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농지법 관련 업무를 수년째 맡고 있는 한 지자체 담당자는 '농지법상 석탄재, 보오크사이트(레드머드) 등

은 일체 농지에 반입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고 준설토를 사용할 경우는 도지사 허가 사항이다"며 "농지에 몰타르를 주입하는 허가행위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몰타르 주입은 농지법상 궁극적으로 안 된다. 땅속이 오염되고 죽는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바람이 멈추어 다오 절기상 소한을 하루 앞두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두꺼운 옷으로 몸을 전복 움크린 시민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폐사·산란을 저하' 강진서 AI 의심신고

5년간 발생 화재 21만4천건중 28% 겨울 3개월간 발생

강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진군 한 종오리 농장에서 오리 폐사와 산란저하 등에 따른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 1만개에서 9500개로 5% 떨어진 데 따라 신고를 한 것. 이 농장에서는 종오리 2만700마리(52주령)를 사육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일 두차례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농장 주변 500m이내에는 오리 사육이 없고 3km이내에는 2개 농가에서 육용오리 3만2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강진=최재영 기자

광주·전남 추위 계속...7~10일 눈·비 예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또 이번 주말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교통 안전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나주 다도 영하

5도, 곡성 영하 4.6도, 광주 영하 2.2도, 여수 영하 1.1도 등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였다. 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5일 새벽에는 전남 남해안 지역에 빙방울과 눈이 날리는 곳이 있

겠으며, 오후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7~8일 오후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9~10일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美 한파로 최소 11명 사망...피해 속출

새해 미국을 강타한 한파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 한파의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기상학자들은 이번 한파의 원인을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bomb cyclone)', '폭탄기원(bombogenesis)'이라고 부른다.

미 국립해양대기관리처(NOAA)에 따르면 '폭탄기원'은 중간 규모의 저기압이 급속히 심해질 때 사용하는 말이다. 차가운 기단과 따뜻하고 습한 해양의 기단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

폭스뉴스의 기상학자 제니스 딘은 "캐나다에서 오는 차가운 공기와 멕시코 만류의 따뜻하고 습한 기단이 만나면서 이런 폭발적인 양상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겨울 폭풍은 흔한 일이지만 겨울에도 온화한 편인 남부지역에서 발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NOAA 기상예보센터의 기상학자 브라이언 잭슨은 "폭탄 사이클론으로 분류되는 폭풍이 1년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저기압의 특징은 남쪽에서 발달한다는 점이다. 보통 이 폭풍들은 워싱턴DC 근처나 더 북쪽에서 형성된다"라고 말했다.

미 기상청(NWS)은 조지아 주 남동부 지역과 플로리다 주 동북부 지역에 겨울폭풍경보를 발령했다. 조지아 주와 플로리다 주는 통상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더불어 NWS는 대서양 중반부터 뉴잉글랜드 해안까지 폭설 및 강풍 경보를 발령했다.

딘은 "이 폭풍은 내일 뉴잉글랜드 해안 지역에 허리케인급의 강풍과 눈보라를 불러일으키며 대서양의 걸프 상공에서 폭발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정도의 위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전 등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한파로 인해 미국 내에서 적어도 11명이 죽었다. 위스콘신 주에서 5명, 텍사스 주에서 4명, 노스다코타 주와 미주리 주에서 각각 한 명이 사망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서 규모 5.3 지진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연안에서 4일 낮 규모 5.3 지진이 일어났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USGS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11시44분(한국시간)께 캄차카 반도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동북동 쪽 81km 떨어진 연안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53.24도, 동경 159.80도이고 진원 깊이가 67km이었으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생기지 않았다고 USGS는 전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태평양판이 북미판 밑으로 침강해 들어가는 지시마(千島 쿠릴) 해구 주변으로 과거 규모 7~8급 대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일본 지진 조사연구 추진본부는 작년 12월 지시마 해구 일대에서 앞으로 30년 안에 규모 9 초대형 강진이 생길 확률이 최대 40%에 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이즈(伊豆) 제도를 이날 새벽 6시30분께 규모 5.4의 지진이 강타해, 섬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고 USGS가 전했다. 진앙은 북위 29.60도, 동경 140.61도이고 진원 깊이가 10.0km이었다.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는 지질 활동이 왕성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크고 작은 지진이 잦다.

에멘 후티 반군, 사우디·美 무인 잠수정 나포

내전 중인 에멘의 해안에서 후티 반군이 미국 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색용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

중동매체 알마스드르뉴스(AMN)는 3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에멘 해안을 순찰하다가 스파이 업무에 쓰이는 레무스 600 무인 잠수정을 발견해 나포했다고 보도했다.

후티 반군은 이 잠수정이 자신들을 공습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주도 아랍 연합군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비는 미군이 과거 이라크전쟁 때 사용하기도 했다.

미 해군은 이번에 나포된 레무스 600 잠수정이 어느 국가 소속인지 확인을 거부했다. 미군이 에멘 해안에서 무인 잠수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을 피했다.

에멘에서는 2015년 3월부터 이슬람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반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다. 사우디는 같은 종파인 에멘 정부를 지원해 후티 공습을 진행 중이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리듬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청각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 [고객센터 1577-1000]